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왕성
만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장로 · 안수집사 후보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다음 주일(29일)
주일4부예배 후
세례교인 모두 참석 바람

지난 3월 11일 정기당회에서 제42대 장로 · 제22대 안수집사 후보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인사위원회 및 당회는 후보자들을 놓고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위감 일꾼들을 심사하였습니다. 교회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진실로 복음 안에 서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장로 후보자 10명, 안수집사 후보자 21명을 바라볼 때 여전히 부족함투성이지만 그럼에도 이들을 피택 후보자로 결정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으며, 이들의 초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마 16:24).

이제 당회가 결정하여 추천하는 장로 · 안수집사 후보자를 공동의회를 통해서 충현의 성도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꾼을 택하라"(행 6:3). 이를 위해서 다음 주일 4부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분은 세례를 받으신 충현교회 등록교인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성도들은 모두 공동의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자기를 부인하는 절트루이 세워지도록 믿을 한 표를 행사하십시오(딤후 2:21). 무엇보다도 <주간충현>에 공고된 장로 · 안수집사 후보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번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로 · 안수집사 후보자 명단은 본지 5면 참조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심판 아래 있는 인간 (로마서 2:1~16)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특별한 사람들로 생각하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인에게 임하는 것이지 유대인에게는 임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유대인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셋째, 진노와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원수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 참으신다는 것이다. 넷째, 유대인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곧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연시했다(시 79:6).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롬 2:1). 유대인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롬 1:28-32, 2:3, 11). 오래 참으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향하여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러나 유대인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스스로 쌓고 있다(롬 2:5). 이방인과 유대인은 동일한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우월함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다(신 4:6-8).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든 율법을 자신들이 완전하게 잘 지킬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짐을 믿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심판주 앞에 섰을 때에 자신들의 의로움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믿는 것이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지 자신들은 알고 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믿는가? 유대인들이 믿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믿었다. 이것이 이방인들과 다른 점이다.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너그러게 봐주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율법을 아는 것으로" 완전하게 의로워질 수 없다(롬 2:13). 심판 날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시 62:12).

심판의 날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롬 2:16). 율법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결코 율법을 아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받는 혜택은 없다(롬 2:12).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를 율법을 아는 자들처럼 판단하시지 않는다(롬 2:15). 유대인은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심판 아래 서게 될 것이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두 같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하나는 율법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율법 없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비록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롬 1:20).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자는 유대인만이 아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창 3:22)에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행함의 법'이다. 그러므로 항상 죄의식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산다(창 3:7, 10). 이것이 범죄한 후 아담의 모습이며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인간의 가슴속에는 행위의 법이 자리 잡고 있다. 양심이 이를 증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고발하거나 또는 스스로를 변명하기 위하여 머리를 흔들. 이러한 배경을 설명한 바울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과 복음을 연결하였다(롬 2:5). 그리스도의 사역에 속한 마지막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요 5:27). 그 날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완성된다.

그리스도인도 행함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후 5:10).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것과 심판 사이에 전혀 상반되는 것이 없다.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심판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심판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깨어 있게 한다. 믿음은 인간이 자신의 행위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수 있는 행위에 대치된 어떤 것이 아니다. 믿음을 율법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러한 공식으로 율법 자리에 믿음을 대치시켜 자신의 요구사항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믿음은 시작이며 또 마지막이다. 모든 것이 믿음에서 오며, 믿음에 의존한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것이다(롬 1:17).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롬 2:12, 3:9, 12, 20). 율법을 아는 그 사실이 곧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의 기본이 된다. 그러나 이방인을 역시 자기 자신이 곧 법이 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 평가할 수가 없다. 아멘.

GOD'S POWER

⁽³¹⁾And when they had prayed, the place where they had gathered together was shaken,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the word of God with boldness. ⁽³²⁾And the congregation of those who believed were of one heart and soul; and not one of them claimed that anything belonging to him was his own, but all things were common property to them. ⁽³³⁾And with great power the apostles were giving testimony to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and abundant grace was upon them all. (Acts 4:31~33)

All human beings desperately need God's power. We need His power to overcome the enemy of our souls. We need His power to live the Christian life. The good news is that all the power we need is available! There is no shortage, but rather a never-ending supply. The problem is that people don't believe and that's why we can't find it. Jesus said,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Mt. 28:18~20). The Lord Jesus promises to be ever-present with His people and to give them His power. When you get this power, do you know what happens? You can do all things,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Phil. 4:13). Do you believe it? Most Christians say they believe it but they don't practice it. Jesus says,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he who abides in Me and I in him, he bears much fruit, for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Jn. 15:5). No one can do anything worthwhile without God's power. Jesus promised us this power through our faith in Him,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Acts 1:8). The primitive church in today's Bible verses had the power to change the world. The Jews of their day complained to authorities, "...These men who have upset the world have come here also" (Acts 17:6), and Gentile merchants criticized, "...These men are throwing our city into confusion" (Acts 16:20). How can we receive God's great power?

We need to plug into the power of prayer, "And when they had prayed, the place where they had gathered together was shaken,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the word of God with boldness" (Acts 4:31). When the primitive church prayed, God's power came, and it came so forcibly that the very ground on which they prayed trembled. Each member was touched by the Holy Spirit, and spoke with confidence about God. Jesus taught us to pray, "Father,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Give us each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sins, For we ourselves also forgive everyone who is indebted to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Lk. 11:2~4). Prayer brings fellowship with God and gives us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t encourages us and leads us to boldly declare Christ to others. It teaches us to depend on God and to tune our desires and wishes to His will.

We need to plug into the power of love, "And the congregation

of those who believed were of one heart and soul; and not one of them claimed that anything belonging to him was his own, but all things were common property to them" (Acts 4:32). This display of Christian charity cannot happen without love. The primitive church didn't operate on the principle of democracy with the majority of opinions winning. They functioned on love. Love always brings people together. Each person esteemed others more than himself/herself, and thus were able to share all things in common. They had true Christian fellowship that was built on love. All Christian efforts are useless without love. Love forgives and breaks down barriers. It looks for the best in our brothers and sisters. Love concentrates on others in the church and produces a passion for the lost. It enables Christians to put away differences and view human beings as more important than possessions,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and is not jealous; love does not brag and is not arrogant, does not act unbecomingly; it does not seek its own, is not provoked, does not take into account a wrong suffered, does not rejoice in unrighteousness, but rejoices with the truth; bears all things, believes all things, hopes all things, endures all things" (1Cor. 13:4~7). Love is truly supreme. When you wonder how this kind of primitive church existed, understand that it did so with the love that comes from believing in Jesus Christ wholeheartedly.

We must plug into the power of witnessing, "And with great power the apostles were giving testimony to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and abundant grace was upon them all" (Acts 4:33). The apostles were given "great" power. This praying and loving church became a powerful witness. They witnessed to the power of the cross and resurrection. Paul preached, "that I may know Him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s, being conformed to His death" (Phil. 3:10). Dying and rising with Christ into new life is something every Christian should share with their neighbors, communities, and acquaintances at large. Evangelism is the greatest need of our time. Churches the world over languish because of their lack of witnesses for Christ. Witnessing Christians are powerful forces for God.

My dear friend, the Christians of the primitive church were people who got God's power. What is it going to take for this church to become a praying, loving and witnessing group that shakes the world for Christ? Let's get back to the basics of Christianity and start praying like our life depends on it, start loving like there is no tomorrow, and start witnessing like Christ is going to return today. If we are true believers, then let's connect with God's power and light up this world. Amen. 

하나님의 능력

⁽³¹⁾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³²⁾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³³⁾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행전 4:31~33)



김성파 목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적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그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소식은 필요한 모든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은 절대로 모자람이 없으며 끝없이 공급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며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주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능력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이 말씀을 믿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관원들에게 항의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행 17:6). 그리고 이방 상인들은 비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행 16:20).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자

우리는 기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행 4:31). 초대 교회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그 능력이 너무 강력해서 그들이 기도했던 장소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각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느꼈고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거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눅 11:2~4).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여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며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정욕과 소원들을 버리고 그분의 뜻에 맞추도록 이끄십니다.

사랑의 능력을 입자

우리는 사랑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행 4:32). 이러한 기독교적인 자비의 모습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초대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다. 그들은 사랑에 기초하여 움직였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듭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존중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기초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수고는 무의미합니다. 사랑은 용서하며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사랑은 형제 자매들의 좋은 점을 보게 합니다. 사랑은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며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열심을 내게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차이를 극복하고 물질보다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게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 13:4~7). 사랑은 참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다. 초대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전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전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행 4:33). 사도들은 “큰” 권능을 받았습니다. 기도와 사랑이 넘치는 초대 교회는 확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빌 3:10).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새로운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지역 사회, 지인들과 나누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이 무기력해지고 있는 원인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을 뒤흔드는 교회, 기도와 사랑과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되 우리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사랑하되 더 이상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고, 전도하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실 것처럼 전도합니다. 우리가 참 신자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세상을 밝히야 할 것입니다. 아멘.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9. 3. 18.)

오 하나님 이번만!
(사사기 16:23~30)

노예로서 삼손이 있을 뿐이다. 이방신전의 중심에서 갖가지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비참하게 서 있는 삼손을 기록한 본문은 우리는 통곡하며 상고해야 한다. 바로 이 모습이 자존심을 앞세우며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이 때문이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 놓은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우리의 모습은 매번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며 회개도 하지 않는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사 21:25). 언제까지 고집을 부리며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는가? 모든 것을 다 잃은 삼손이 하나님께 구하는 마지막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한다. "오 하나님 이번만!"

자신을 인정한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며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뵈옵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사 16:28).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다. 이전에 삼손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족으로 부려 지켰다. 그러나 그는 백성의 환호에 자신이 누구인지 잊었다(사 13:5). 교만하였으며 자존심을 내세우며 유신의 편파를 쫓아갔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삼손의 실패원인은 그의 어리석음이나 실수에 있지 않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삼손이 모든 것을 잃은 유일한 이유는 말씀에서 떠나기 때문이다(잠 29:18).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영적 지도자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에 그는 더 이상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마 15:14). 말씀을 없었기에 삼손은 무능력했다. 이것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절절대는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했다(마 17:16). 제자들은 말씀을 의지하기 보다는 이전에 예수님이 하던 방법이나 경험에 의존하였기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말씀을 붙들지 않았던 자신을 인정해야 한다. 삼손은 자신의 결정적인 실패원인을

총 21장으로 된 사사기에 무려 4개장(13~16장)에 걸쳐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가 되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힘으로 2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사 14:6).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화려했던 삼손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땀물을 흘리는

캐달았기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간구했던 것이다. 삼손은 자신을 인정하였다.

기회를 포착하였다 삼손을 잡은 블레셋인들은 자신들에게 대항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우두머리를 잡은 것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인 '다곤'의 능력과 믿었기에 큰 제사를 열었다(사 16:23~24). 다곤 앞에서 블레셋인들은 절하며 먹고 즐기고 있었다. 조건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블레셋인들은 아무런 힘없는 삼손을 중용하고 신전으로 끌고 와서 두 기둥 사이에 세웠다(사 16:25). 삼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사 16:26). 소년의 도움을 받아 신전을 지탱하는 기둥 사이에 선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다(사 16:28). 자신을 인정하고 모든 자존심을 버린 삼손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였다(15:15). 삼손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더 이상 삼손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며, 오직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요 15:5; 눅 4:6). 그리고 이 믿음은 사사로서 삼손이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었다. 삼손이 한 것이 아닌 삼손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신 것이다(대하 7:14). 삼손은 기회를 포착하였을 때 주저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굴매하 고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벽들과 온 백성에게 떨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사 16:30). 삼손은 자신의 힘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구했던 지난 날들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고풍스런 죽음을 선택하였다(빌 3:10). 삼손은 진실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참 신자의 승리는 이 세상의 것을 누리는데 있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얻는 데 있다. "비뚤이 이 말이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한 자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딤후 2:11~12). 영원히 초점을 두며 살아가는 참 신자의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약 5:16). 삼손의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모든 것을 잃은 채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삼손은 자신을 자신을 인정하였다. 그동안 자존심을 앞세우며 교만하였던 자신의 행실을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는 말이다. 또한 기회를 포착하였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다. "오 하나님 이번만!" 간절한 삼손의 간구는 믿음의 간구였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실천이었다(마 16:24). 지금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만과 자존심에 불타는 의식과 위선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진심으로 회개하자. 회개할 기회, 복음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자. "주님과 함께 죽게 하소서!" 아멘.

마가복음 강해 63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
(12:1~2)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던 종교인들과의 대화를 마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 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땅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곡에 갔더니"(막 12:1~2).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도 또한 이곳에서 일할 농부들을 세웠다. 이제 때가 되어서 포도원 수확을 받기 위해서 주인은 자신의 종을 보냈다(막 12:3). 그런데 육신에 사로잡힌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거나 상처를 입혀 능욕하거나 심지어 죽이기를 계속하였다(막 12:4~5). 결국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막 12:6~8). 결국 주인은 포도원의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막 12:9).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시 80:8,15~16 ; 사 5:7 ; 렘 2:21).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극상종 포도나무를 심어 좋은 도매 맺기를 원했지만 결과는 돌포도였다(사 5:2).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다(대하 36:15~16). 매번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님을 모독하였다(눅 9:26).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실로 사랑했지만 이스라엘은 정반대였다(마 5:12, 23:37) 이스라엘 수많은 선지자들을 의해서 예언된 '그 외인', 예수님까지 죽이는 데 망설이지 않았다(렘 7:52).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종교인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며, 심지어 주인의 아들이까지 죽인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리키는 줄 알고 그 자리를 피하였다(막 12:12).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직접 이와 같은 사사를 말씀하시기도 하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막 1:11).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막 9:7). 이와 같은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잘 알던 종교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막 14:61, 15:26).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거부하였다. 회개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몰이키지 않았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존함하였으므로 핑계로써 때 다윗 왕이 원통히 많은 죄를 지었다(삼하 12:3~4).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로 회개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삼하 7:14).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것이 은총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말이라"(마 21:43). 열매 맺는 백성은 외인이 아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요 6:40)인 예수님을 믿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가 성령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막 12:10~11 ; 시 118:22~23). 버려진 돌이기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다. 불꽃없이 보일지라도 그 버린 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롭고 값이있는 돌이다(벧전 2:4).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벧전 2:15).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자.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이고 있다.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십자가 보혈과 관계없는 사람에게 진노의 재물이 내려질 것이다(렘 23:11~12). 십자가를 붙들며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자. 아멘.

제42대 장로 후보자 명단

 문 효 식 나이 65 교구 15 지역장 집사회회장 차량안내부 번호: 1	 노 은 영 나이 63 교구 23 장년4부부장 바울전도회장 예루살렘찬양대 번호: 2	 구 원 섭 나이 61 교구 1 지역장 바울전도회장 예배위원 번호: 3	 최 경 하 나이 59 교구 17 지역장 집사회부회장 양·남곡추진위원 번호: 4	 김 영 주 나이 55 교구 5 지역장 유이부부장 제직회시기 번호: 5
 윤 해 군 나이 52 교구 18 지역장 청년1부부장 예배위원 번호: 6	 최 민 석 나이 52 교구 15 지역장 의료선교부장 할렐루야찬양대 번호: 7	 이 창 희 나이 50 교구 10 지역장 유년부부장 양·남곡추진위원 번호: 8	 김 명 성 나이 50 교구 12 지역장 신교실행위원 차량안내부 번호: 9	 백 봉 선 나이 46 교구 4 지역장 대학부부장 별양찬양대부장 번호: 10

(나이순)

제22대 안수집사 후보자 명단

 이 연 구 나이 62 교구 6 소망부교사 바울전도회장 번호: 1	 한 종 남 나이 59 교구 7 바울부교사 차량안내부 남성구역장 번호: 2	 김 향 태 나이 58 교구 10 감사위원 남성구역장 번호: 3	 최 동 식 나이 57 교구 5 예배안내 남성구역장 번호: 4	 백 남 제 나이 57 교구 7 베드로전도회장 남성구역장 번호: 5
 김 석 제 나이 56 교구 14 장년3부교사 남성구역장 번호: 6	 정 효 석 나이 56 교구 9 베드로전도회장 전교위원 남성구역장 번호: 7	 윤 순 규 나이 54 교구 3 남성구역장 번호: 8	 박 건 일 나이 54 교구 15 헌교위원 남성구역장 번호: 9	 권 백 용 나이 54 교구 22 차량안내부 남성구역장 번호: 10
 박 병 선 나이 52 교구 23 베드로전도회장 아래찬양대 번호: 11	 김 희 동 나이 51 교구 4 가브리엘찬양대 새가족양육부장 남성구역장 번호: 12	 정 봉 성 나이 50 교구 4 베드로전도회장 남성구역장 번호: 13	 이 준 희 나이 50 교구 22 고통부교사 베드로전도회장 번호: 14	 홍 경 성 나이 47 교구 5 소년부교사 남성구역장 번호: 15
 박 성 철 나이 46 교구 16 신교위실행위원 남성구역장 아래찬양대 번호: 16	 최 규 태 나이 46 교구 2 자원봉사부 신교위실행위원 남성구역장 번호: 17	 문 우 식 나이 46 교구 21 요한전도회장 남성구역장 번호: 18	 최 규 옥 나이 45 교구 12 요한전도회장 할렐루야찬양대 번호: 19	 임 병 익 나이 44 교구 14 새가족양육부장 임마누엘찬양대 번호: 20
 김 광 선 나이 42 교구 8 할렐루야찬양대 남성구역장 번호: 21				

*다음 주일(29일) 4부예배 후(오후 2시, 본당) 공동의회 시
장로·안수집사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은 모두 참석하십시오.

(나이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대학교 1학년 때 사탕부에서 봉사를 시작한 이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15년 동안 저를 사탕부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사탕부들 통해서 어릴 적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탕부 학생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들을 많이 떨칠 수 있었고, 사랑을 섬기고 사랑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크고 놀라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1년 2개월 동안 사탕부 교사로 학생들을 대하는 것이 정신적으론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내가 얘기해 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힘들었고, 사탕부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 제대 후에는 다른 부서에서 교사를 할 생각으로 교사 양성부에 교육을 신청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중에 마지막 2주 동안에 교사실습을 나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사탕부보다는 당시 교사임용고시들을 준비하던 저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 중등1부 교사로 지원하였습니다.

실습 기간 동안 중등1부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사탕부에 다니는 것이 좋으리라는 다짐을 했지만 오히려 사탕부 학생들이 더 떠올랐습니다. 이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사탕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다시 사탕부에서 봉사를 지속하게 되었고, 군 입대 전에 가졌던 사탕부에 대한 생각과 판단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사고였으며 어리석은 모습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다시 사탕부로 이끌어 주신 것이 저의 결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었음을 믿습니다.

사탕부에서의 교사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여타의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지만 오랫동안 사탕부 교사를 감당한 저에게 있어서서는 저와 함께 이십 대를 같이 했고, 지금도 저의 삶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탕부에서 쓰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이끌어 주시며 감사드리며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탕부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준성(교사, 사탕부)

"사탕부는 지적장애우들이 매주일 오전 11시, 충현복지관 지하1층에서 모여 예배하며 복음을 배우는 교회학교이다."

은혜가 넘치는 가정 심방

"주님! 저도 봉사를 하고 싶어요. 어느 곳에서 무슨 봉사를 해야 하나요?" 주님을 향한 나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으려 내 마음을 인도하셨고,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유아부로 인도하셨다. 유아부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했던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직 기저귀도 벗지 못한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나는 주일은 너무 빠르게 다가갔고 마음의 부담도 생겼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매주 전화 심방을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는 의무감으로 했다.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주일이 다가오면 주님께서는 내가 한 주 동안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한만큼 출석을 하게 하였고, 다른 반 아이들이 전원 출석상을 받는 것을 보고 "우리 반도 받았으면..." 하는 욕심으로 기도하였던 것조차 주님께서는 듣고 계셨다.

"선생님들은 아이들 가정을 심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나간 시간들이 필름처럼 지나갔다. 예전엔 나의 두 아들의 선생님을 가정 심방했는데 교회에서 심방하기를 원했었다. 그때 한 번이라도 "가정 심방을 하려는데 어머니 생각은 어떠신지요?"라고 물어봐 주었으면 하고 생각한 적이 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아무리 멀어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 심방을 하도록 기도한다. 하지만 집이 인천인 나는 모두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반 아이들을 심방하기가 쉽지 않아 전화 심방이나 교회에서 심방을 하고 싶은 두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부모님들께 심방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내 입술에선 "어머니, 가정 심방을 하고 싶는데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 주시면 멀리라도 제가 꼭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말을 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라며 심방을 잘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섰다. 기도밖에 방법이 없었고 이젠 나에게 주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주셨고 마음에 평온까지 주셨다.

가정에서 나를 만나서 풍요할 아이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준비했음을 주님께서 심방 내내 인도해 주심을 체험했고, 감사함으로 첫 심방을 마치게 되었다. 두 번째 심방을 앞 두고 나의 마음에는 심방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없어져 있었다. 너무나도 태연하게 다음 심방을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부끄럽게 만드셨다. 세 번째 심방을 마쳤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회개를 하게 하였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고요임을 알게 해 주셨다.

부족한 것이 아이들을 심방하고 난 후 아이들에게서 많은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부모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울던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 혼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나와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내게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까지 주셨다. 집이 멀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가정을 심방하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는 맛보지 못했을 텐데...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심방을 해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전지희(교사, 유아부)



주님이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면 이리시되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마 8:2-3). 풍광처럼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신 심호흡을 하며 암송을 시작했다. 이 순간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다. 금요찬양집회 시에 있는 성경암송을 준비한 지난 한 달은 온전히 주께서 함께 하셨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미리 미리 외워도 좋으련만, 나는 게으름을 피우며 미리 외우면 잊어버리고 또 스트레스 받는다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교만하게도 나의 야기력을 믿으며 말았다.

그런데 암송 날짜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암송을 시작했으나 나의 계획은 처음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선교회 심사와 교회학교 수련회까지 겹쳐 내 힘으로 외우기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몇 번이나 '포기할까?' 생각했지만 함께 암송할 집사님들을 생각하니 그럴 수도 없었다. 순간 뇌리를 스치는 말씀이 있었다. 내가 외울 마태복음 8장 3절의 말씀 중에 "내가 원하노니"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그래! 주님이 원하시면 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리라." 나는 주님을 믿고 확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정작 외웠다 싶으면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몇몇숙이 이해져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외워질 것을 확신하며 말씀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외우기 시작한지 일주일 만에 내 입에서 말씀이 저절로 외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주님, 정말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볼 때 30대에도 할 수 없었던 암송을 단시일 내에 해내는 은혜를 주셨다. 이제 은혜 가운데 성경암송은 끝났다. 함께 암송했던 집사님들의 얼굴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 고맙스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집사님들 암송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암송 하였고, 또 다른 집사님들은 직장 일을 하며 틈틈이 암송을 준비했기에 더욱 감사가 넘쳤다. 우리는 비록 미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의 자녀 삼으셔서 말씀을 선포해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김영민(원사, 15교구)

주님이 주시는 마음

어느 주일, "집사님!" 하고 부르는 소리에 둘러 보니 전도사님이었다. "봉사하세요." 저는 그날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입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시고자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고, 봉사를 해야 하는데 결정을 못했던 나의 마음을 헌금봉사로 인도해 주셨다. 헌금을 하다가 보면 몸이 불편하신 집사님들을 만나게 된다. 그분들의 정성으로 헌금을 드리는 모습과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기도하게 된다. 부끄러운 생각과 함께...

지난 주일 교회에 나오지 못한 그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비록 주님 전에 나오시지는 못할지라도 기도로 위로해 드리고 싶다. "주님께 드린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건강을 예전처럼 회복 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헌금봉사를 통해서 출현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 눈물과 기도로 나누고 싶고 부족한 저에게 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서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결정하신 분은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느끼며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 드린다.

하미숙(집사, 16교구)

심자가의 길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경건한 표상이라고 할만큼 대단한 종교인들이었다. 반면 세리는 부패와 부정한 표상으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부류였다. 바리새인은 성전 앞쪽으로 가서 두 손을 들고 자신만만하게 기도하였다. “하나님이여, 외로운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세리가 기도한다. 그는 감히 제단 앞으로 가깝게 나가지 못하고 몸을 수그린 채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였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세리의 심정으로 우리는 사순절(2.25~4.11)을 지나야 한다.

바리새인은 사순절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사순절을 지켜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지킨다. 그저 사순절이 되었으니만 평상시 좋아하던 일을 잠시 멈춘다. 오락을 삼가고, 평상시에 안 나오던 새벽기도회까지 나온다. 이처럼 주님을 위해 무언가 절제하는 모습은 좋아 보인다. 그러나 그 행위의 동기가 문제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를 부인하는 특별한 기간이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문제다.

사순절은 자신의 어떤 경건한 종교적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간이 아니다. 십자가를 붙들며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해야 한다. 마음을 찢는 진서인 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포기하는 오락, 음식 등 어떤 행위에는 관심이 없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다. 그동안 외식과 위선적으로 살아왔던, 아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죄성을 주님 앞에 불같이 회개해야 한다. 평일과 주일의 모습이 전혀 달랐던 이중성을 눈물로 회개해야 한다. 사순절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간이다.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멈추고 십자가를 붙드는 기도를 드려야.

내 영혼이 주를 찬양

나 가진 모든 것

매주 금요찬양집회 시간은 찬송의 은혜로 넘치고 넘친다. 특히 요즘에는 성금요일 칸타타를 위한 찬양준비가 한창이다. 찬양이 더욱 은혜로운 이유는 팔복인 고난과 십자가가 아닌 그리스도의 삶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기 때문이다. 어느 성금요일처럼 갈보리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단순히 기억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소망하며 더 나아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찬양을 통해 되뇌기에 더욱 좋다. 성금요일 칸타타에 연합찬양대와 함께 성도들이 찬양가로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찬양곡은 <내 주를 가까이> <나 가진 모든 것>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을 찬양합니다>이다.

총 여덟 개의 칸타타 곡 중에 여섯 번째로 성도들이 할 찬양인 <나 가진 모든 것>은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다. 시작부터가 철저히 겸손하게 시작한다. 들릴 듯 말듯 연주되는 피아노 전주부터 은혜의 파도는 넘실댄다. **“나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주님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 다 주님께 바치며.”** 위임목사님은 이 단락을 가브리엘 천사 앞에 선 마리아처럼 찬양하라고 하신다. 정말 놀랍고 감동하기 어려운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던 심대의 마리아, 그 심정으로 찬양을 드린 눈물부터 흐른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려놓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니 그 은혜가 아주 분명하게 보였다. **“참 상한 이들에게 친신 위로 베풀고 저 외로운 자들보게 하시네, 주님의 은혜로 주를 섬기리.”**

나의 것을 자랑하며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였던 약한 마음이 저절로 벗겨지는는 느낌이다. 내가 몸부림치며 베틀는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파스한 주님의 손길이 도처히 벗겨져 나가기 그 은혜가 아주 분명하게 보였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은총이 아닌가! **“나 비록 약하나 주 하신 말씀 의지해, 그 풍성한 은혜 주 내게 주시니 그 축복하심 감사해.”** 나 가진 모든 것! 아니 가진 것이라고는 죄뿐인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좋다.



첫지기칼럼

이 열심 내 것이 아님을

초등학교 시절 주일에 교회로 가다가 부모님이 주신 연봉돈으로 민화방으로 직행하였던 것이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사연입니다. 물론 이후에 수많은 죄를 지은 것이 부끄러워 말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주님을 상대로 죄를 지었으니 나는 지옥불에 뛰어들 죄인이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였는지도 모르면서 매년 선물을 주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가 있기에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변 친구와 함께 휩쓸리며 방황하고 타락할 때에도 주님이 요나를 잡으신 것처럼 나같은 내 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였습니다(은 1:3). 최근에 와서 느낀 것이지만, 온갖 잡기를 즐기면서 되도록 하나님을 의면하며 피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외면하지 않고 나를 옆에 두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행동들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흥한것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찬 278장)를 부를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나는 무척이나 욕심이 많은 인간이라서 뭐든지 시작하면 정상에 오를 때까지 미친듯이 몰두하여 남들이 부러울 정도의 수준을 취하여야 만족함을 느끼는 별종입니다. 주말마다 테니스대회 출전을 위해 전국을 누비다 보니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도 버겁습니다. 결국 나는 무릎연골이 파열되어 다이상 테니스를 못하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때쯤 신촌가정부에서 교육을 맡으며 교사를 시작하였고 의료선교부에서 진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교회에 머무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교구 내에 충직한 직분자들이 품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를 현재까지 이끄시어 속량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드립니다(엡 2:11~14). 전에는 연약한 가족들과 상의 못하는 고민이 있었지만 이제는 말씀과 믿음을 통하여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좌절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언제나 기도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저는 당당하며 행복합니다.

티끌보다 못한 나에게 생령과 귀한 달란트를 주시고 이것들을 교회와 직장 사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사용하게 하신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두 번 다시 예수님 배반하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찬 271장). 요즈음은 주변의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이 예수님께 인도되어야 할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며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드려 줍니다.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내에게도 주소서.”를 부르며 전도와 봉사나 나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내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열심 내 것이 아님을 늘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귀하신 성전인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로만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빛진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고전 6:20).



박석선
(인수집사, 기교구)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406	이진규	25	외선부	상기(월)(1)	422	정경근	1	청년1부	이준하(1)
407	진인규	9	청년1부	오준현(9)	423	최지현	6	청년1부	고수정(22)
408	김지창	13	청년1부	장미애(13)	424	노지연	3	청년1부	임금준(2)
409	강정하	11	청년3부	김(월)(11)	425	이영	9	청년1부	최민하(9)
410	유수민	14	충동부	황하영(22)	426	윤재민	9	청년2부	최민하(9)
411	류정민	6	청년2부	전준희(3)	427	공세희	24	유치부	박정재(24)
412	이형우	24	청년1부	최옥숙(21)	428	변병훈	10	청년3부	김선지(18)
413	이형우	24	청년1부	최옥숙(21)	429	김연희	10	청년3부	김선지(18)
414	이현아	24	고등부	최옥숙(21)	430	정현웅	14	청년1부	조동일(16)
415	이현아	24	소년부	최옥숙(21)	431	신정은	16	청년1부	조동일(16)
416	김진주	22	청년1부	남준호(14)	432	이재영	5	고등부	이미애(5)
417	주재욱	17	청년2부	정영태(11)	433	박지희	13	청년1부	이영규(13)
418	이종민	6	충동3부	이미경(6)	434	박선숙	19	청년2부	조연미(6)
419	김효은	6	충동3부	이미경(6)	435	최수현	23	청년1부	이영규(13)
420	권우성	3	충동3부	이미경(6)	436	이은정	13	청년1부	이혜자(24)
421	최희준	19	청년2부	이승연(19)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